

제주 방언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문순덕*

차 례

1. 서론
2.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
3. 결론

1. 서론

보통 부정소가 쓰이고 부정의 의미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이중 부정문은 명시적인 부정소인 '아니'나 '못'과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나 '못하다'가 쓰였으나 부정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은 문장 형식은 부정문이지만 내용은 긍정이다. 그러나 부정문의 형식상 부정소의 선택이 필수적이어서 이 역시 부정문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이라고 하면 부정소의 겹침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부정 어휘인 '모르다'나 '엇다(없다)'가 쓰인 부정 표현까지도 이중 부정 형식에 포함해서 논의하겠다.

여기서는 제주 방언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보겠다.

2.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

제주 방언도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부정소에는 ‘아니’와 ‘못’이 있으며, 부정 서술어에는 ‘아니하다’와 ‘못하다’가 있다. 우선 부정소와 부정 서술어의 통사적인 공기 관계를 살펴보고 나서 담화 특성도 논의하겠다.

(1) 가. 가원 아니 웃지 아니했저.¹⁾ (그 아이는 안 웃지 않았다.)

나. *가원 아니 웃지 못했저. (*그 아이는 안 웃지 못했다.)

다. 가원 못 웃지 아니했저.

라. *가원 못 웃지 못했저.

(2) 가. 날이 아니 좋지 아니하다. (날이 안 좋지 않다.)

나. *날이 아니 좋지 못하다. (*날이 안 좋지 못하다.)

다. *날이 못 좋지 아니하다.

라. *날이 못 좋지 못하다.

보통 부정소 ‘아니’나 ‘못’은 동작 동사와 자유롭게 공기하는 특성이 있는데, (1나)는 주어가 3인칭이어서 단순 부정 ‘아니’와 타의 부정의 ‘못하다’(문순덕, 2000에서 부정소 ‘아니’의 의미를 ‘단순 부정’으로, 부정소 ‘못’의 의미를 ‘타의 부정’으로 보았다.)가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주어가 1인칭이면 “난 아니 웃지 못했저.”처럼 문장이 성립한다. 여기서 이중 부정문의 성립 여부는 부정소와 부정 서술어의 호응 관계는

1) 제주 방언 종결어미에 ‘-저/-주’가 있다. ‘-저’는 평서형·의도형 어미로 쓰이며, ‘-주’는 주로 평서·청유·의도형 어미로 쓰인다.

물론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라)에서는 타의 부정의 '못'과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겹치는 경우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와 부정소, 부정 서술어의 공기 제약 관계라 할 수 있다.

(1)에서 “아니/못+동작 동사+아니하다”는 성립하는데, “아니/못+동작 동사+못하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가 ‘못하다’보다 통사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가')에서 부정의 영역을 보면 부정소 ‘아니’가 서술어를 부정하기도 하고 동사를 부정하기도 한다.

(1가') 가. [가인 [아니 [웃지 아니했저]]]

나. [가인 [아니 웃지] 아니했저]

(2가)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단순 부정이어서 문장이 성립한다. (2나)가 비문법적인 것은 주어가 3인칭이며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단순 부정의 ‘아니’와 타의 부정의 ‘못하다’가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 서술어 ‘못하다’는 상태 동사와 공기하는데, 여기서 주어 ‘날’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무정물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2다, 라)는 부정소 ‘못’이 상태 동사와 공기할 수 없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부정소 ‘못’은 동작 동사와만 공기하는 통사 제약이 있다.

(2)에서 “아니+상태 동사+아니하다”는 성립하는데, “아니/못+상태 동사+못하다”나 “못+상태 동사+아니하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부정소 ‘아니’나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가 부정소 ‘못’이나 부정 서술어 ‘못하다’보다 통사 제약이 덜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듯이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부정 서술어’의 통사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정의 의미가 두 번 겹침을 알 수 있다.

- (3) *올지 아니하지 아니했저. / *못했저. (*올지 아니하지 아니했
다. / *못했다.)

(3)이 비문법적인 것은 부정 서술어의 겹침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중 부정문의 구조는 언제나 '부정소+부정 서술어'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4) 가. 는 가의 몰르지 아니한다. / *못한다.

(너는 그 아이 모르지 아니한다. / *못한다.)

- 나. 가의 집이 엇지 아니한다. / *못한다.

(그 아이 집에 없지 아니하다. / *못하다.)

- 다. 나가 아니 갈 수 엇수다. (내가 아니 갈 수 없습니다.)

(4가)에서 '모르다'는 인지동사로서 화자는 '주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단순 부정 '아니한다'가 성립한다. 여기서 '모르다'에 이미 不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타의 부정의 '못하다'와 공기하지 않는 것이다. (4나)에서 '엇다'가 동사 '잇다'에 대한 존재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장소에 대한 특정 존재 여부는 주어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부정 서술어 '아니한다'와는 공기하지만 '못하다'와는 공기할 수 없다. (4가, 나)에서 부정 어휘 '모르다'·'엇다'와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다)에서 '엇다'는 '불능'의 의미로 쓰였고,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즉 부정소 '아니'와 공기하면서 '불능'에 대한 부정이 되고 있다.

(4)에서 부정 어휘 '모르다'·'엇다'에는 부정소 '아니'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형식상 장형 부정문의 통사 구조이지만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와 같다.

이중 부정 표현²⁾의 통사 구조에서 보듯이 부정 영역은 다음과 같다.

(4') 가. [[가의 몰르지] 아니한다] / [가의 [몰르지 아니한다]]
나. [[집이 엇지] 아니한다] / [집이 [엇지 아니한다]]

(4')를 통해서 이중 부정 표현도 그 의미는 긍정임을 알 수 있다.

(4)에서 부정 어휘 '엇다'·'모르다'가 장형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이중 부정 표현이 가능한 것은 부정 어휘 속에 부정소 '아니'·'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중 부정문의 형식은 “단형 부정문+장형 부정문”의 통사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부정 서술어”의 통사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부정소와 부정 어휘에 의한 이중 부정 형식을 띠면서 긍정문이 되고 있으며 긍정의 내용을 확인,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엇다', '모르다'가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는 (1)~(4)에서 보듯이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복합 형식임을 알 수 있는데, 부정소의 이중 겹침은 허용하지 않고 부정소가 앞에 오고, 부정 서술어가 뒤에 온다. (4)는 '부정 어휘+부정 서술어'의 복합 형식이다. (1)~(2)와 (4)를 비교해 보면 부정 어휘에 이미 부정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가 동사에 선행하는 단형 부정문과 동사에 후행하는 장형 부정문의 구조가 복합되어서 나타나지만 “부정소+동사어간+지+부정 서술어”를 하나의 서술어로 인식된다.

부정소와 부정 서술어가 동일 구조내에서 사용된 이중 부정문은 부정소의 의미가 독립해서 쓰일 때와 똑같이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 부정소 '못'은 '타의 부정'의 의미이며 통사적인 제약 현상도 같다. 물론 부정소 '아니'나 '못'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긍정문

2) 이중 부정 표현이란 명시적인 부정소 '아니'와 '못'이 쓰인 부정문과, 부정의 의미가 있는 '모르다'와 '엇다'가 쓰인 문장을 뜻한다.

으로 쓰일 때보다 긍정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 (5) 가. 는 아니 먹지 아니했어? (너는 안 먹지 않았어?)
 나. *는 아니 먹지 못했어? (*너는 안 먹지 못했어?)
 다. *는 못 먹지 아니했어?
 라. *는 못 먹지 못했어?

(5)는 이중 부정 의문문인데, 판정 의문문일 때이다. (5가)는 주어의 의지 반영이 가능하므로 성립한다. (5나~다)는 주어가 2인칭이며, 주어의 의도적인 행동이 가능하므로 단순 부정 ‘아니’와 타의 부정의 ‘못하다’가 공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 (6) 가. 밧디 아니 가지 말게. (밭에 안 가지 말자.)
 나. *밧디 못 가지 말게.

- (7) 가. 는 아니 가지 말라. (너는 안 가지 말라.)
 나. *는 못 가지 말라.

(6가)와 (7가)에서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으로 쓰이며, ‘-지 말다’와 공기한다. (6나)와 (7나)에서 보듯이 부정소 ‘못’은 청유문과 명령문에는 쓰일 수 없다. 부정소 ‘못’에는 후행 동사의 동작을 실행할 수 없다는 ‘불능’, ‘타의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못하다’는 평서문·의문문에만 쓰이고, 명령문·청유문에는 ‘말다’가 쓰인다. 즉 명령·청유문은 청자의 행동을 수반하는 문장이다. 부정 어휘 ‘말다’는 대상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화자(주어)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서 명령·청유문에 쓰인다. 따라서 이때의 부정 서술어도 ‘아니하다/못하다’ 대신에 ‘말다’로 대체되었다.

다음은 이중 부정문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겠다. 이중 부정 형식이

긍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면 처음부터 긍정문을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이중 부정 형식을 취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가)에서 부정소 ‘아니’는 ‘단순 부정’으로 쓰이고 있으며, 서술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긍정문인 “가윈 웃었다.”보다는 이중 부정문에서의 의미가 좀 약화되었다. 즉 “웃기는 했지만 화자, 청자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웃다’라는 동작에 미치지 못하는 미온적인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다. “웃긴 웃었는데 시원하게 또는 원하는 만큼 웃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썩 내키지 않는 동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강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약한 부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웃다’라는 주어의 동작이 긍정이고, ‘안 웃다’가 부정이므로 여기에 부정소가 첨가되어서 ‘어느 정도 웃었다’는 중간 단계(판단 유보)가 나타난다. 또는 “청자의 생각보다 크게 웃었다”는 의미도 가능하다. (1다)는 ‘그 아이도 남들이 웃는 만큼,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웃었다.’는 뜻이다. 즉 화자가 판단하기에 그 아이의 웃음소리나 웃는 동작, 표정 등에서, 어느 정도 웃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본인은 흡족하지도 않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기쁘게 웃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못 웃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2가)는 누군가 화자에게 날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 가능한 발화이다. 즉 어떤 일을 하기에 적당하다는 긍정적인 발화이다.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좋다는 의미이다. ‘좋다’와 ‘나쁘다’의 중간 단계이다.

(4가)는 부정 어휘 ‘모르다’의 장형 부정문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긍정이다. 즉 “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긍정의 문장이다. 이중 부정문의 형식을 취한 것은 ‘너는 안다’라는 단정보다는 청자에게 어느 정도의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화자도 단정해서 ‘너는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청자의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4나)는 부정 어휘 ‘엇다’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에 의한 이중 부정 형식으로 내용은 “그 아이는 집에 있다.”는 긍정의 뜻이다.

‘집에 있다’라는 단정보다는 ‘집에 있긴 있는데’ 화자나 청자가 바라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가, 나)는 장형 부정문의 구조인데 이중 부정 형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모르다’, ‘있다’에 이미 부정소 ‘아니’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4다)는 이 통사 구조와는 조금 다르지만 좀 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다)는 “내가 가야 한다”는 긍정, 단정, 강조의 뜻이다. 이중 부정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다.

(5가)는 ‘먹었다’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 먹을 음식이 남아 있다면 ‘조금, 어느 정도’ 먹었다는 뜻이다.

(6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발에 가자고 권유하고 있다. 즉 긍정문인 ‘발에 가자’보다 이중 부정문의 표현을 빌어서 화자의 의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7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갈 것을 명령, 강조하고 있다. 긍정문 ‘가자’보다 화자의 감정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이상에서 제주 방언 이중 부정문의 통사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담화 특성도 살펴보았다. 이중 부정문의 통사 구조는 “단형 부정문+장형 부정문”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은 화자의 생각을 단정,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청자의 생각보다 긍정의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중 부정문에 대응되는 긍정문이 있는데도 그 긍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중 부정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발화자의 심리 상태, 청자의 반응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의 명제에 대해서 화자나 청자는 나름대로 작위적인 해석이 가능

하며, 그럴 의도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이중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는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우회성을 띤 발화(화자의 소극적인 자세)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다. 따라서 이중 부정문의 의미는 완전한 긍정의 의미가 아닌 그 중간 단계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구종남(1992), 국어부정문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문순덕(2000),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이익환·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